

동화사, 일일시호일에 이주민 지원금 5천만원

〈법보신문 공익법인〉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와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주지 능충 스님)가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8월13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를 만나 “법보신문과 일일시호일에 진행되는 이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팔공총림 대중들과 힘을 보태고 싶다”며 후원금 5000만원을 보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동화사 회주 의현, 주지 능충, 중앙총회의원 지우, 박물관장 범기 스님이 동참했다.

동화사 주지 능충 스님에 따르면 진제 스님은 매달 법보신문에 소개되는 이주노동자들의 딱한 사연을 눈여겨 보았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낯선 이국땅에서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애를 안고, 각종 희귀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연을 전해 들을 때마다 진제 스님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이주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불교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국불교계가 이들을 돕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꾸준히 전달했다. 이에 동화사는 이주노동자의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이주민 정착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제 스님은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부강한 나라로 발전한 것은 1970~80



진제 대종사와 대구 동화사가 이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을 일일시호일에 전달했다.

종정 진제 대종사, 이주노동자 딱한 사연에 안타까움 회주 의현 스님 등 “이주민 돕기에 힘보태야” 발원

년대 유럽으로 중동으로 나가 외화벌이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피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보면 과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노동자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분들도 그 당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보신문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회주 의현 스님은 “종정예하께서는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상생행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직접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보시행을 실천해 오셨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록 돕는 것은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은 이제 230만명을 넘어섰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법보신문과 공익법인 일일시호일은 10여년 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막대한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종정예하와 회주 의현 스님을 비롯한 팔공총림 동화사 대중의 큰 율력은 법보신문과 일일시호일에 진행되는 이주민 돕기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일일시호일은 법보신문이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복지지원 사업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그동안 이주노동자 병원비 지원, 다문화 저소득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및 생필품 지원 등을 진행해왔다. 2019년 8월 이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재한 이주민 불교단체연대 조직인 한국다문화 불교연합회 창립을 이끌었으며 올해 4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등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단체로 선정되면서 국내 이주민 정착지원 및 다문화가정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부산=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금 6개 중 5개 불자 선수...불심 빛났다

2020 도쿄 올림픽 이끈 불자 선수들

양궁 안산·강채영·장민희 선수 등

불자 선수 70여명 투지 넘친 경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긴 2020 도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8월8일 막을 내렸다. 한국은 금메달 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따내며 종합 16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그 중심에는 눈부신 활약을 펼친 불자 선수들이 있었다. 6개의 금메달 가운데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양궁과 펜싱에서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다. 불자 양궁 선수 안산은 도쿄올림픽에 처음 도입된 혼성 단체전을 시작으로,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 금메달을 모두 목에 걸었다. 진전 선수촌 내 법당을 자주 찾아 법문을 듣고 기도를 올리는 등 신실한 불자로 알려진 강채영 선수와 장민희 선수도 안산 선수와 함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단체전 9연패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우렁찬 '코리아 화이팅'으로 주목을 받은 김제덕 선수는 첫 출전한 올림픽 무대임에도 혼성과 남자 단체전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하며 2관왕에 올라 정상급 선수임을 입증했다.

펜싱에서도 불자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다. 불자인 김정환 선수와 구본길 선수는 김준호, 오상욱 선수와 함께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45대 26 압도적인 점수차로 꺾고 런던올림픽에 이어 도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펜싱 사상 첫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여자 펜싱팀은 불자인 '에이스' 최인정 선수를 앞세워 점진 끝에 은메달을 따냈다. 펜싱 남자 에페 단체팀은 '할 수 있다' 박상영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 중국을 45대 41로 제치고 남자 에페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펜싱 간판' 김지연 선수가 이끄

는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만나 대역전극을 펼치며 여자 사브르 최초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불자 선수들은 단체전 출전권을 따낸 모든 종목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고 투지 넘치는 경기는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했다.

베드민턴에서도 불자선수의 선전이 빛을 발했다. 한국 선수 맞대결로 주목을 받은 베드민턴 여자 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불자 김소영-공하용 선수가 세계랭킹 4위 이소희-신승찬 선수를 2대 0(21대 10, 21대 17)으로 꺾고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올림픽 시상대 위로 올라가진 못했지만 특유의 당찬 플레이로 많은 국민들을 열광케한 불자선수들도 있다.

남자 역도 109kg 이하급에 출전한 진윤성 선수는 인상 180kg, 용상 220kg을 들어 합계 400kg을 기록하며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6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그가 보여준 도전정신은 큰 울림으로 전해졌고,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권은지 선수는 남태웅 선수와 팀을 이뤄 남다른 기량을 뽐내며 혼성 10m 공기소총에서 4위를 기록해 2024 파리 올림픽의 전망을 밝혔다.

체육안전법담당장 퇴후 스님은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심적으로 불안함을 많이 느꼈다. 전법단 차원에서 불서, 단주 등을 전달하고 영상 법회를 진행하며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오랜시간 숨가쁘게 달려온만큼 잠시라도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출발선에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선수 232명, 지도자 88명, 임원 포함 총 391명이다. 대한체육회장(IOC위원) 이기흥 회장, 선수단장 장인화, 부총장 정성숙 임원을 비롯해 사격 진중오 펜싱 김지연 체조 양학선 등 불자선수 70여명이 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불자 선수들은 금메달 5개를 획득하며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사진은 양궁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안산, 강채영, 장민희 선수.

“대자대비로 코로나 극복·불교중흥의 초석 세워야”

불법승 삼보사찰 천리순례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 베퍼

四威儀內不曾虧 (사위의내부증후)
今古初無隔斷時 (금고초무격단시)
地獄天堂無異變 (지옥천당무이변)
春回楊柳綠如絲 (춘회양류녹여사)

사위의 행주좌와에 이지러짐이 없으니 / 지금과 옛적이 처음부터 끊어짐이 없음이라 / 지옥과 천당이 이변이 없음이니 / 봄이 됴에 푸른 버드나무 가지가 실과 같도다

선의 황금시대인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조주 선사(조주 스승이신 남전 선사 회상에 감지 행자가 하루는 공양구를 잔뜩 싣고 와서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잘 올렸습니 다. 스님들이 공양을 마치자 처사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는 한 가지 청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편의 경(經)을 독송해 주십시오.” 대중 스님들이 일제히 반아심경을 독송해 주니, “그 경은 청하지

않았습니다”하고 처사가 말했습니다.

이것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사주의 공양 받기가 그리 힘이 드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經)을 독송해야 하는가? 남전 선사의 시자가 대중과 함께 있다가 조실 방으로 가서 이 일을 아뢰니, 남전 선사께서는 즉시 일어나 큰 돌을 하나 안고 공양실로 가서서 대중의 공양술을 깨 버리셨습니다. 어째서 ‘그 경은 청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서 큰 돌을 가지고 가 대중의 공양술을 깨 버렸느냐? 이 도리를 알아야 사주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하루에 만 냥 황금이라도 녹일 수 있는 실력이 되어서 빛이 안 되는 법입니다. 시화대중이시여! 남전 선사께서 돌을 안고 가서 술을 깨 버린, 그 도리를 아는 자 있으면 한 번 몇 지게 답해 보라.

[한참 묵묵히 계시다가 이르시기를, 원주(院主)야, 내일부터는 대중 스님

들 운력을 시키지 마라.

금번 불교중흥을 위한 천릿길 불법승 삼보사찰 순례는 거년의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이어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사부대중이 동참하여 불법승 삼보사찰인 불국정토 순례를 통해 부처님께서 가신 것처럼 길을 걷는다 하니 이는 영검의 수승한 인연공덕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지구촌은 전 세계적으로 장궤환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중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의 탐욕과 화, 무명의 망상 분별로 가지관이 전도되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영검토록 수승한 인연공덕인 불법승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임하는 사부대중은 걸음걸음마다 호흡 호흡마다 일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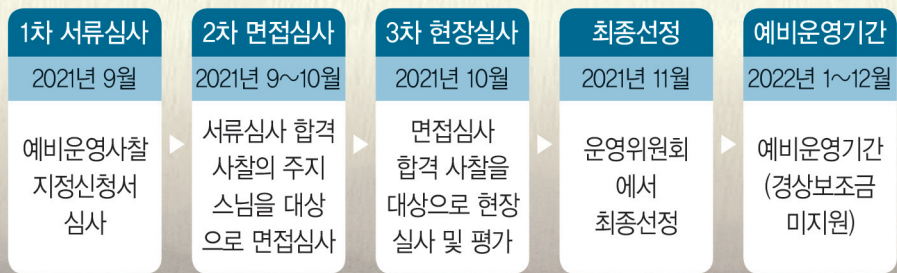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규정)」

제4조 (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 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5. 템플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구비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갖춘 사찰

■ 선정 절차 안내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심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심사 평가표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년 8월 16일(월) ~ 9월 6일(월)
- 신청자격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소속 사찰
- 신청서류
 - 1) 2022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 자료 포함)
 - 2)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 신청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 1)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2) 파일제출 : yong@templestay.com으로 제출
- 접수 및 문의 : (03145)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행정관 김용태
- 서류심사 결과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안내

※신청기한 엄수 및 구비서류 누락 시 탈락 처리

2022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 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기여할 역량 있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기2565(2021)년 8월 16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 경